

2023 美 교회 10가지 추세...전도·다양성·교회 입양

미국의 교회성장 전문가인 톰 S. 레이너 (Thom S. Rainer)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2023년 미국교회의 10가지 주요 추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레이너 박사는 칼럼에서 "처치앤서스 (Church Answers)는 매년 수만 개의 교회, 교회 지도자 및 교인의 의견을 듣는다. 미국의 약 350,000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 받은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레이너 박사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대세가 될 현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모인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져다 연결했다"며 2023년 미국교회의 10가지 주요 추세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지역교회는 과거 30년의 그 어느 때보다 전도를 강조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문화적 기독교와 과거의 성장(만)으로 교회를 발전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교회가 진정으로 제자 삼기를 원한다면 전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2. 2023년에는 회중의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다. Z세대는 단일 문화, 특히 단일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3. 2023년은 교회 입양의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다. 입양된 교회는 일반적으로 더 건강한 다른 교회 가족들, 보살핌 및 권위에 속한 교인들을 의미한다. 물론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입양도 더 많이 모색하게 될 것이다.

4. 더 많은 교회가 구체적인 글로벌 파트너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특히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선교헌금의 증가 그 이상이다. 그것은 특정 교회 또는 교회들과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다.

5. 임시 목회의 간격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질 것이다. 장기 임시 목회 기간이 12개월이었던 때를 기억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 갖고 있다.

6. 임시 목사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분명히 5번째 추세의 결과다. 이 임시 목사들 중 일부는 설



©Cuttersnap/ Unsplash.com

교자일 뿐이다. 다른 목회자들은 설교 뿐만 아니라 자문을 맡은 '의도적인 다리' 역할로 간주된다.

7. 미국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상담을 요청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처치앤서스는 불과 3년 전보다 10배 더 많은 상담 요청을 받고 있다. 교인들은 외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져나갈 것이다.

8. '교회 부검'은 미국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난 2014년에 죽은 교회의 부검에 관한 글을 썼고, 2022년 이 책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다.

9. 더 많은 목회자와 직원들이 이중직과 공동직을 갖게 될 것이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이들을 말한다. 이중직 목회자들은 교회가 풀타임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다.

10. 더 많은 목회자와 직원들이 교회에서 신학 및 사역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왔으며, 2023년에도 계속해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레이너 박사는 "미국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희망을 본다. 2023년 여러분의 교회가 희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강혜진 기자

미 유권자 과반수 "바이든 이후 미국 악화됐다"

라스무센리포트, "미국 미래 낙관" 2년만에 9% 하락

미국 유권자의 약 절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이후 국가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밝힌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는 지난 14일과 15일, 18일에 미국인 유권자 900명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국가로서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바이든의 대통령 직무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7%는 "바이든이 국가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34%는 "더 좋게 만들었다", 17%는 "어느 쪽이든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이어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전성기는 미래인가 아니면 과거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가 "미국의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1월 라스무센이 질문했을 당시 같은 대답인 47%보다 확연히 감소했다.

반면, 과거가 미국의 최고의 날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42%로 2020년 33%보다 더욱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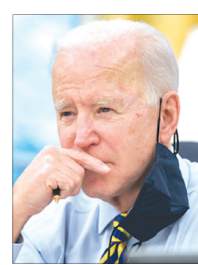
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10명 중 과반(57%)이 "바이든이 미국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 10명 중 7명(70%)은 "바이든이 미국을 더 악화시켰다"

고 말했다. 무소속 유권자의 42%는 바이든이 국가를 더 나쁘게 만들었고, 31%는 바이든이 국가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원은 10명 중 5명 이상(52%)이 "미국의 최고의 날이 미래에 있다"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30%)과 무소속(31%) 유권자는 3명 중 1명 미만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지난 3월, 유타주 지역 매체인 데저릿 뉴스는 미국인의 72%가 "국가의 도덕적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다"고 답한 뉴욕 마리스트 대학(Marist College)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에서 기독교인의 74%, 무교인은 6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가 미국의 도덕적 나침반이 잘못된 방향에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화당원은 10명 중 9명(90%)이 이 의견에 동의했고 무소속은 77%, 민주당원은 51%가 뜻을 같이 했다.

2021년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트라팔가 그룹(Trafalgar Group)은 응답자의 과반(52.8%)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비해 10명 중 4명 이상(43%)은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미국 보수 단체인 컨벤션 오브 스테이트 액션(Covention of States Action)의 마크 메클러 회장은 당시 결과에 대해 "미국인들은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공화당과 무소속 모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 부족을 거의 동일하게 보여줬다"라며 "상당수의 민주당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창립기념부흥회

주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1월 13일(금)~1월 15일(주일)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이경은 목사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담임)

첫째 시간: 1/13(금) 7:30pm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신12:1-3)

둘째 시간: 1/14(토) 6:00am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롬 8:26)

셋째 시간: 1/14(토) 7:30pm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

넷째 시간: 1/15(주일) 1부 8:00am
순종이 어려운 이유(삼상 15:22-24)

다섯째 시간: 1/15(주일) 2부 10:30am
순종이 어려운 이유(삼상 15:22-24)

여섯째 시간: 1/15(주일) 3부 1:00pm
마음을 상하지 말라(출 6:6-9)

주님의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신승훈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Tel_213.749.4500 | www.gcjc.org

NCKPC 총회장 “팬데믹 끝자락에서의 새해, 소명 새롭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김성택 총회장이 회원교회들에게 목회서신을 발송하고 엔데믹 상황 가운데 맞는 2023년 새해는 목회의 소명과 전략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김 총회장은 “무엇보다도 길고 힘들었던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이제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너무도 크게 변화시킨 충격 그 자체였으나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과 훈련을 받았으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들에게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사역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총회 주제는 ‘Restart- 새로운 시작: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사11:2)로 정했다. 김 총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목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소명과 전략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CKPC 임원회는 총회에서 해당 주제로 강의할 2명의 주강사를 이상훈 박사(AEU 대학 총장)와 한국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로 결정했다. 김 총회장은 “이 박사는 팬데믹과 관



PCUSA 김성택 총회장.

련해 많은 연구와 집필을 한 학자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이민목회의 정확한 좌표를 짚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 “김경진 목사는 목회와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새롭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영감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김 총회장은 새해의 사역과 관련, “총회 산하에 밀렸던 많은 사역을 회복하고, 힘든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돕고, 여성 리더십을 키우고, 선교하며 교단 내의 여러 이슈들을 미리 미리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강태광 목사 “기독교 문학 산책” 판매 수익금 1만 달러 기부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자신의 저서 “기독교 문학 산책” 판매 수익금 1만 달러를 아이티 소망교회 건축비로 기부했다.

강태광 목사는 지난 28일 LA 코리아타운 강남회관에서 월드쉐어 USA 자문위원과 지역 기독교인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1만 달러 전달식을 갖고 활동 현황을 보고했다.

강태광 목사가 지난 7월 출간한 “기독교 문학 산책”은 기독교 언론을 통해 연재했던 칼럼을 모은 책으로, 세계 명작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기독교적 안목으로 해석한 책이다. 강 목사는 출간 초기부터 판매 수익금을 아이티와 수리남 아동들을 위한 교육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 약속했었다.

강 목사는 “그동안 물질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지도위원 목사님들과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내년 사순절 전까지 미주 지역 400여 한인교회에 책을 전달하고 아이티와 수리남, 우크라이나 지원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이어 “특별히 오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망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전기 공급을 위한 솔라 패널 지원 및 긴급 구제를



월드쉐어USA 자문위원 좌부터 박세현 목사, 강태광 목사, 김은목 목사, 송정명 목사, 강순영 목사, 각건섭 목사, 민경엽 목사 ©기독교일보

위한 ‘생명의 빵 나눔’(SBS, Sharing Bread for Soul)운동에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격려사를 전한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 대표 송정명 목사는 “출판을 통해 1만 달러의 수익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아진 수익금을 개인과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이티에 교회를 짓겠다 기부하는 마음이 매우 귀하다”며 “지속적으로 귀한 사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역을 돕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순영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글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

려운 나라들을 돕는 사역은 매우 선하고 복된 일”이라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우리나라를 세계 각국이 도왔던 것처럼, 강태광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한국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격려했다.

기독교 언론을 대표해 격려한 크리스천 위클리 조명한 사장은 “강태광 목사님으로 인해 월드쉐어 USA의 사역 지경이 크게 확대 됐다”며 “1만 달러라는 통근 기부에 박수를 보내며, 힘들고 어려운 금후 사역을 이어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라는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와 수리남에 학교와 고아원 교육 시설 등 기독교 학교 건립 비전을 갖고 있다. 한국 거창고등학교를 모델로 아이티와 수리남에 기독교 학교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티와 수리남 교육 사업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2만 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강 목사는 “학교와 교회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한인 교회와 사회, 단체에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새생명선교회 2022년 사역보고, 총 21만1천200달러 지원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가 본지에 지난해 사역 내역을 송고하고 2023년에는 더욱 활발한 사역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새생명선교회가 보고한 사역 내역에 따르면 새생명선교회는 지난해 총 21만1천200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16만5천 달러를 지도력 개발에 지원했다.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1천500달러씩 총 15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신경희 선교사가

운영하는 킬키스탄 대학에 1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 몽골국체 대학교에도 2천400달러를 지원했다.

미국 선교단체인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과 협력하는 15세 선교단체인 Frontier Venture 선교 사역을 위해 6천 달러를 지원했으며 씨드선교회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교육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신경희 선교사 부부에게 6천 달러를 지원했다. 교회와 선교기관들의 협력을 도모해 선교

기도 운동, 훈련 동원, 세미나 등을 주최하는 KIMNET에 7천 달러를 지원했으며 인터넷 선교기관인 KCMUSA에 4천 달러, 미주성서화운동본부에 3천200달러를 지원했다.

한국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7천200달러를 보냈으며 CTS 방송선교를 위해 1만2천 달러를 지원했다. 또 대전보육원과 부모님 선교회 등 금후 사역에 5천600달러를 지원했다.

박희민 목사는 “새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새생명선교회 회장 박희민 목사

를 이기고 새롭게 전진하고 도약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가운데 저희 선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 가정과 사업, 교회에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상담 이론과 임상 겸비한 전문 상담가 양성할 것”

[인터뷰]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과 최민수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상담심리학과 석사 학위 과정 디렉터로 최민수 교수 최근 부임했다.

최민수 교수는 미주장신대 부설 기관인 산타페 상담소장을 겸임하며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전문 상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면과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산타페 상담소는 미주 전 지역을 비롯해 캐나다까지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최민수 교수로부터 미주 장신대 상담심리학과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11월 미주장신대에 부임하셨습니까. 학과 발전을 위한 계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과와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비전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반한 인간의 심리와 정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독교 상담가 양성입니다. 둘째는 다양한 상담 현장에서 전문적인 상담 이론과 상담 기법을 활용할 실천적 상담가 양성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의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과의 전 과정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과정을 마치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치료를 가르치고 임상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상담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치료기법의 습득하게 됩니다.

저는 미주장신대에 부임하기 전 7년 동안 한인 이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목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한인 이민자들과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지는 한인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서 상담적인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제공받지 못하는 한인 이민자들과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한인 전문 상담사에 대한 필요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 **미주장신대는 최근 한국목회상담협회(한목상),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한기상)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최근 이상명 총장님께서 방한하셔서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한국목회상담협회(한목상)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한기상)와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의 핵심적인 두 학회들과 본교의 MOU 체결은 두 학회에도 의미심장한 기여를 미치게 될 것이지만 특별히 본교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먼저는 굳이 한국을 가지 않더라도 이곳 미주지역에서도 한국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미주장신대 학생들은 이곳 LA에서도 한기상의 전문상담사 자격시험과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더불어서 미주장신대와 한국의 두 기독교 상담학회들과의 학문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본교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취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실제 상담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임상수련의 수준 역시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호주에서 내러티브 치료 과정을 수료하셨는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애들레이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애들레이드는 남호주의 주도이지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덜위치 센터(Dulwich Centre)가 있습니다. 덜위치 센터는 이야기치료(Narrative Therapy)가 태동된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매해 이야기치료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의 덜위치 센터를 방문합니다. 저도 덜위치 센터에서 이야기치료를 배웠습니다.

이야기치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심리치료이면서 가족치료입니다. 이야기치료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와 사상에 가장 근접한 심리치료이며 가족치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야기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민수 교수

그래서 저는 우리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이 학위과정을 마치기 전에 이야기치료로 실천가로서 자신들의 상담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야기 치료를 자신의 주요 상담기법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이야기치료 학회에서 발급하는 내러티브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리고 있습니다.”

◆ **2023년 가을학기에 신설되는 상담, 코칭, 영성 철학박사 학위 과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3년부터 본교에 신설될 상담, 코칭, 영성 철학박사 학위 과정(Ph.D. in Counseling Psychology and Spiritual Coaching)은 본교 전문코칭학 석사학위 과정의 디렉터로 계시는 오규훈 교수님과 한국의 기독교 영성의 대가이신 유해룡 교수님, 그리고 깊이 있는 상담의 대가이신 김용환 교수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상담, 코칭, 상담 철학박사 과정은 다자학제간 수업을 통한 상담과 영성, 코칭을 통합하는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고의 학문적인 센터가 될 것으로 자부하는 바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입학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 **산타페 상담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주장신대 부설기관인 산타페 상담소는 본교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의 상담 실습기관일 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상담센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타페 상담소는 2023년의 활발한 재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무료로 미주 전 지역과 캐나다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교 홈페이지 또는 산타페 상담소 홈페이지(<https://santafec.org>)로 들어오셔서 개인상담 또는 가족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미주장신대 상담학과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주장신대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졸업하면 이민교회 현장이나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신의 소명에 따라 기독교 상담가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실천적인 상담가로서 자신만의 분명하고도 독특한 상담기법을 가지고 마음과 정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과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사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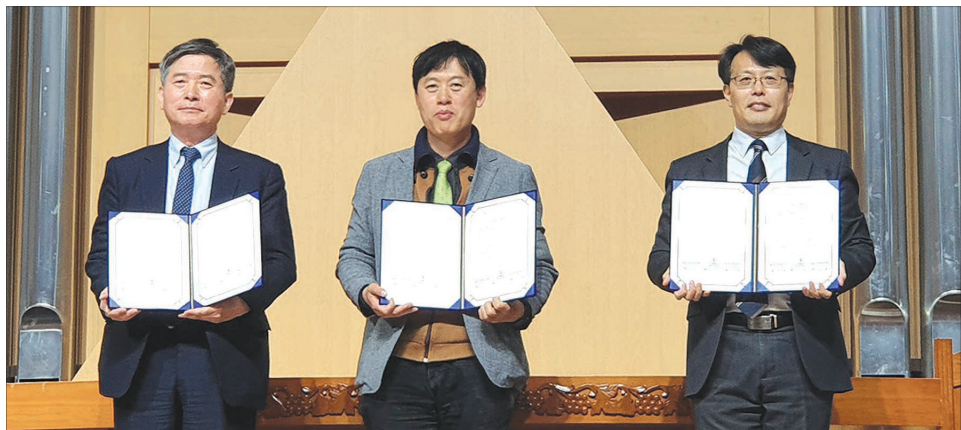
회복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며 이 시대를 회복시킬 진정한 위로자들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본교 상담심리학과와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 **최민수 교수는**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으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으로 신학석사,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 주그랜드래피즈에 있는 Pine Mental Health Center에서 임상목회교육(C.P.E)과 호주 애들레이드에 있는 Dulwich Centre 에서 내러티브 치료 과정을 수료했다.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과, 서울기독교대학교 상담대학원 기독교 상담학과에서 전임교수, 풀러신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버지니아비치 The 낮은 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김동욱 기자



좌부터 미주장신 이상명 총장, 한기상 오화철 회장, 한목상 김기철 회장



캘리포니아 산타페스프링스에 소재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일보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소망을 이루는 새해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동터옵니다.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독교일보 독자와 온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지구촌 곳곳에 드리운 암운은 새해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을 듯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

로나 팬데믹,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 심각한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탈신앙과 반복음적 풍조는 갈수록 거세 집니다. 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릴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흐릅니다. 바람은 어디론가 불고 강물은 흐르고 바다는 출렁입니다. 차고 이지러지는 달도, 지고 뜨는 태양도 살아 있음에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삶도 그러합니다.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삶의 흔적을 역사로 남깁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삶의 흔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만이 과거를 반추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살아있는 인간만이 향유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은 예의를 갖추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평화를 전하며, 책임을 다하며, 겸손과 감사로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 눈 속의 들보보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볼 일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우리말 속담에 ‘똥 문은 개가 벼 문은 개 나무란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한시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에 자신의 티가 아닌 언제나 타인의 티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법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의 ‘들보’를 스스로 찾으려 하는 겸허한 태도가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립니다.

신라시대 말기의 학자였던 최치원은 ‘원마심경간(願磨心鏡看)’, 즉 ‘진실과 거짓을 가

리려거든) 원컨대 마음의 거울부터 맑게 닦아야 하리’라는 금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성의 거울을 매일 맑게 닦는 일은 우리 일상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맑고 투명한 그런 거울을 하나씩 간직하면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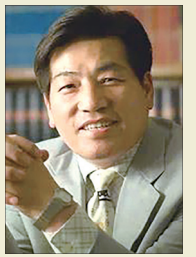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원대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성에 기반을 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 둘 세워질 때 교회와 사회는 조화와 질서와 희망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조화롭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궁극적 지혜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2023년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사

새해에는

묵은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에는 기도로 시작하리라



박효우 목사
풍성한교회

담 울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몽롱할지라도 눈을 비벼서라도

냉수 한 컵 들이키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서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로 해결 받으리라

그리고 새해에는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리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기도로 살으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에는 기도로 마치리라

동체를 회복시키는 교회당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히 10:25)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튀르키예의 지하도시 데린쿠유에서 예배하던 정신을 복원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리라 예상합니다. 새해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민과 성도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혼란한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주의 중심에서는 어린양 예수께서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말씀을 따르면 삽니다. 어린양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새해에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깃발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실 한 해

유난히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던 2022년 한 해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
공동 대표회장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계묘년 2023년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셨습니다. 벅찬 일이요 소망의

씩을 다시 띄울 수 있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일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아팠고 상처가 깊었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발걸음을 옮겨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새해 첫 발자욱을 옮겨 놓기 시작하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고 시간 시간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이 나라도 함께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눅 들었던 지난날의 움츠림에서 가슴을 활짝 펴시고 당당하게 한 발자욱씩 한 발자욱씩 옮겨 나가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주의 중심에 계신 예수를 붙들라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회전 놀이기구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회전판 위에서 철봉을 붙들고 버팁니다. 장난꾸러기들은 그 회전 놀이기구를 빨리 돌려, 안에 탄 사람이 떨어뜨리려 합니다. 붙들고 버티는 재미도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 회전 놀이기구 주변에는 위험한 물건도 없었고, 바닥도 모래나 스폰지로 폭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보면, 마치 회전 놀이기구에 탄 느낌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와 다양한 용도를 따라가기 힘이 듭니다. 슬그머니 자리 잡기 시작한 셀폰은 가족 사이로 너무 깊이 들어왔고, 날마다 가지는 큐티도 빼앗아갑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빨리 변화한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사무 행정, 영상문화는 오프라인에 익숙한 세대를 세차게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변화로 가득한 2023년을 맞은 우리는 어지럽게 회전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기억에 의하면, 끝까지 회전판에서 버티기 위하여 중심 가까이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바깥쪽에 있을수록 속도감은 더했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가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카이 올수록 회전속도는 덜 느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팬데믹 3년을 통과하며, 어려운 시절을 이기며 계묘년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우주의 중심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계시록 5장에는 우주의 중심 본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곳에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 예수께서 좌정하십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주의 중심에 계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히 12:2) 축복합니다. 그는 믿음의 원조이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제자로 친구로 부르십니다.

둘째로, 우주의 중심에 나아가는 일은 바로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팬데믹이 걷히는 2023년은 예배의 때입니다. 비상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를 바꾸어, 이제는 공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2,950 (전일정 항공포함)

예루살렘 7박8일

10월 9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819-5132, 714-534-1911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김삼환·김상복·김진홍 목사 등 원로들의 '2023년 전망'

“새해는 영적 벽돌로 교회 짓는 때”

C채널방송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특집 좌담 '교회가 희망입니다'를 방송한다.

1부에서는 김삼환 원로목사(명성교회) 진행으로 김상복 원로목사(할렐루야교회),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장), 박춘화 원로목사(창천교회), 최홍준 원로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등 원로들이 나선다.

2부에서는 기침 직전 총회장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진행으로 예정 합동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예정 통합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지유하는교회), 기성 전 총회장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등이 출연해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부 패널로 참여한 원로목사들은 “초유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1부 방송 모습. 왼쪽부터 박춘화·김진홍·김삼환·김상복·최홍준 목사. ©C채널

곳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도력을 발휘했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현재 한국교회도 그와 같은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그 지도력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므로, 무엇보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에 대한 경험이 목회자는 물론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현혹

되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며 외부적 방해요소와 무관한 교회의 생명력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패널로 참여한 중진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위상과 기독교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중진 목회자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환경 문제, 다음 세대 신앙의 뿌리 바로 세우기 등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신년특집 좌담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2023년 새해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물론, 신앙의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영적 벽돌을 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이어령·주선애부터 김선도·정필도,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2022년,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난 인물들

2022년 하늘로 떠나보낸 기독교계 주요 인물들을 소개한다.

1월 14일에는 김성광 목사(강남침례교회)가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목사는故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시작했던 최자실 목사의 2남 1녀 중 차남이다. 조 목사 아내였던故 김성혜 사모의 동생이었다.

2월 26일 낮 12시 20분경,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가 암 투병 끝 향년 89세에 딸이 기다리는 천국으로 떠났다. 편안히 눈을 감은 이 교수는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죽음을 응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어령 교수는 2007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시작으로 영성에 관한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이날 밤에는 같은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세계 YMCA 회장을 지냈던 에큐메니칼계 원로 서광선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 일제시대 목사였던 부친을 따라 만주로가 유년시절을 보낸 이 교수는 1949년 봄 학기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6.25 이후 부산으로 피난했다.

3월 중순에는 여러 인사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12일에는 1966년부터 시무한 광성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김창진 목사가, 15일에는 규장 출판사 설립자이자 말씀 암송운동에 헌신한 여운학 장로, 16일에는 흥성우 1세대 인권 변호사, 18일에는 예수교 대한감리회 설립을 주도한 신신목 목사가 각각 세상을 떠났다.

3월 21일에는 부산 북음화에 앞장섰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가 82세에 주님

품에 안겼다. 정 목사는 1975년 6월 1일 수영로교회를 개척해 36년간 성도 3만 5천여명의 대형교회로 키워냈다. 기도를 강조한 그는 은퇴 후 해외선교에 매진했다.

4월 2일에는 파주 순복음삼마교회에서 목회하던 이일성 목사가 66세로 소천받았다. 이 목사는 서울기독신학대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영산신학원을 졸업하고 아산대 문학석사와 복음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고양시에 교회를 개척했다.

이어 4월 7일에는 1세대 민중신학자인 김용복 목사가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한일장신대 총장과 기독교아시아연구원 원장, 한국기독교 학회와 한국민중신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4월 20일 대표적 1세대 인권 변호사였던 한승헌 변호사가 88세로 떠났다. 그는 군사 정권 시절 100여 건의 시국사건 변론을 맡았고, 1974년 NCKK 인권위원회와 1988년 민변 창립을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 개혁추진 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6월 10일에는 한국정교회 초대 대주교로서 한국 선교의 초석을 놓은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대주교가 서울에서 93세로 별세했다. 아테네 대주교좌 성당 주임사제였던 그는 1975년 선교 사제로 한국행을 자원해 서울 마포구 성 니콜라스 성당에 부임했다. 이후 7개 지역 성당 건립에 참여하고 100여 종의 종교 서적 및 예식서를 번역 출간하며 ‘한국정교회 영적 아버지’로 불렸다.

6월 20일, ‘탈북민들의 대모’ 주선에 장신대 명예교수가 98세에 하늘로 떠났다. 1948년 월남한 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 서울여대·숭실대를 거쳐 장신대에서 22년간 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 은퇴 후 탈북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 등 탈북민



2022년, 우리 길을 떠난 인물들.

들을 위해 헌신했다. 장신대 전신인 평양신학교와 남산신학교에서 모두 수학한 신학 교육의 산증인이며, 생전 재산을 모두 기증했다.

10월 18일에는 원로 에큐메니칼 신학자이자 ‘풍류신학’을 정립한 소금 유동식 전 연세대 교수가 100세로 별세했다. 감신대와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난해 용재학술상을 수상했다.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10월 22일에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85세로 사망했다. 1969년 서울 신길동에 성락교회를 세우고 1978년 베로아 아카데미를 설립해 1990년대 초 5만 명까지 성장시켰으나,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소속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987년 이단으로 규정했다.

11월 25일 새벽, 감독회장을 지낸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이자 광림교회 원로 장천(杖泉) 김선도(金宣燾) 목사가 92세로 소천받았다.

6.25 전쟁 때 의대생으로 북한군에 강제 징

집당한 그는 인천상륙작전 후 복진하던 국군에 투항, 기적적으로 5분 만에 국군 군의관이 됐다. 이후 군복을 거쳐 1971년 광림교회 5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교회를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시켰다. 세계감리교협의회(WMC) 회장과 한국월드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해외 기독교계 인사들도 여럿 떠났다. 1월 13일 미국하나님의성회(Assembly of God) 총회장을 지낸 조지 우드(George Wood) 목사가 암으로 투병하다 80세로 별세했다. 2월 11일에는 폴 슈나이스(Paul Schneiss) 목사가 떠났다. 그는 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독일 힌츠 페터 기자에게 알려,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전하는 촉매 역할을 했으며, 독일 귀국 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호소했다.

3월 10일에는 흥남 철수 작전 당시 1만 4천여 피난민 구출에 크게 기여한 로버트 러니(Robert J. Lunney) 미 해군 제독이, 7월 27일에는 미국 북음주의 사회운동가 로널드 사이더(Ronald J. Sider) 박사가 떠났다.

9월 8일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다. 1952년 2월 왕위에 올라 올해로 즉위 70주년을 맞았으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임명 이틀 뒤 영면했다. 영국 성공회 수장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자주 표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대웅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IS에 참수된 이집트 교인 유족들의 성지 방문 돕겠다”

필로스 프로젝트 로버트 니콜슨 대표

미국의 한 자선단체가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살해된 이집트 순교자 21명의 유가족 1백 명에게 내년 성지여행을 제공하기로 했다. 필로스 프로젝트 로버트 니콜슨 대표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목표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한 가족에게 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목표는 이집트의 기독교 공동체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2015년 2월 CP의 보도에 따르면, IS 연계 무장세력은 리비아 해변에서 남성 21명을 참수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9년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현지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차별과 박해를 조사하기 위해 이집트를 방문하는 동안 나왔다. 이 단체는 당시 이집

트 정부 관계자 외에도 콥트교회와 콥트가톨릭교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행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태어난 이집트 도시인 민야를 방문한 니콜슨 회장은 여행가이드에게 희생자 가족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며칠 후 니콜슨과 그의 대표단은 신앙 때문에 살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신앙과 조국 순교자 교회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다.

어느 시점에서 사제 중 한명은 필로스 프로젝트 회장에게 유가족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필로스 프로젝트 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당초 이 단체는 2019년 10월 가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봉쇄로 인해 여행이 지연되었고 다음 성탄절에 성지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니콜슨 회장은 “목표는 100명의 어린이와 부모, 친척을 모셔 그들이 모두 원했던 경험



을 제공하고 가능한 한 변화가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여행 자금으로 이미 2만달러를 모금했다. 필로스 프로젝트는 또한 웹사이트에 기부를 원할 경우 초대하는 페이지를 제작했다. 니콜슨 회장에 따르면 100명을 성지

로 초대하는 비용은 약 3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니콜슨 회장은 필로스 프로젝트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고 옹호함으로써 중동 기독교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언급했다.

니콜슨 회장은 “이 지역에 기독교인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이고 부활한 공동체이다, 수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이 있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고 했다.

이 단체는 또한 유가족들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위해 이집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는 오픈도어에 따르면 이집트의 박해 수준은 ‘매우 높음’이다. 이집트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국가 목록에서 20위를 차지했다.

이미경 기자

지저스미션 다큐 ‘우크라이나 속으로’ ‘최전선 향해 나아갈 것’



미국 비영리 선교단체 ‘지저스 미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 속으로”. ©Jesus Mission 유튜브 채널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될 것이라 예고한 가운데, 난민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선교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최근 방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우크라이나 속으로: 전쟁터에서 교회가 되는 이야기”는 미국 비영리 선교단체 ‘지저스 미션’(Jesus Mission)이 자체 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포격을 당한 마을을 여행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전쟁 최전선에서 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저스 미션의 앤디 제이스먼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여러 대의 승합차로 우크라이나 격전 지역에 보급품을 수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위기의 가장자리에 있고 싶다고 말해왔다. 현지 우크라이나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대기석에서 내려와 해답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라며 “위험을 표현하며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는 무엇보다 복음이 나아갈 문을 열어준다”고 했다.

이 단체의 선교사들은 단 7대의 차량으로,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45만kg가 넘는 식료품들을 수송하고 있다. 제이스먼은 “우리 목표는 가능한 최전방에 음식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며 “마을에는 식량도, 물도 없고 전기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역 교회가 없다면 선교 단체는 무의미할 것”이라며 “지저스미션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스먼은 “지저스 미션 지원 차량”이라고 적힌 승합차가 있지만 그 외에는 지역 교회와 협력한다”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교회에 음식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난민들이 긴 싸움을 치르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피어스 웨스트플 지저스 미션 전무이사는 CP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천 명이 식료품과 지역 교회가 나눠주는 음식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웨스트플은 “우리는 지역 교회를 통해, 말 그대로 날마다 제자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본다. 이러한 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제자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가서 가족들을 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오픈도어,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 로 이름 변경

리사 피어스 새 CEO 선임하기도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미국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USA)가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섬기는 광범위하고 은밀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GCR)로 이름을 변경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GCR은 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박해받는 수백만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비전을 넓혀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다.

GCR은 이와 더불어 새로운 CEO 선임 소식을 알렸다.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의 뒤를 이어 리사 피어스(Risa Pearce)가 새 CEO를 맡았다.

피어스 CEO는 오픈도어와 16년 이상 함께했으며, 조직의 최고 개발 및 지원책임자를 역임했고, 영국 및 아일랜드 오픈도어 이사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가장 위험한 나라에서 ‘보이는 교회’와 ‘지하교회’를 지원하기 필요한 모든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해결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섬기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은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며 회사명 변경 이유를 밝혔다.



미국 오픈도어의 데이비드 커리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이어 “향후 5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새로운 비전, 박해받는 전 세계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헌신된 기독교인들을 동원하는 큰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1월 1일 우리의 이름을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로 바꿨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는 현장의 파트너들과 함께 비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들을 알리며, 가장 필요한 곳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영리단체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로, 70개국 이상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긴급구호, 직업 훈련, 기독교인 변호, 지역 사회 재건을 돕고 있다.

특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위 50개 국가를 매년 발표한다.

이 단체는 2021년 보고서에서 1,047,835권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했고, 3,393,491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며, 685,887명의 사람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개발을 통한 도움을 제공했다.

지난 5월 데이비드 커리 전 CEO는 프랭크 R. 울프 전 미 하원의원 및 위구르 출신 변호사 누리 터켈(Nury Turkel)과 함께 미국 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임명된 바 있다.

한편 한국에는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지부로 1995년 창설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도 활동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로렌 데이글 “소외된 어린이, 노인 돕는 단체에 60만 달러 기부”



로렌 데이글. ©유튜브 캡처

미국의 CCM 가수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이 어린이와 노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단체인 ‘더 프라이스 펀드’(The Price Fund)를 통해 60만 달러(7억 5천만원)를 기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렌 데이글은 뉴올리언즈에서 공연을 하면서 현지 음악학교인 엘리스 마살리스 센터, 루이지애나 영 오디온스, 키드 스마트 등에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가스펠음악협회가 발표했다.

로렌 데이글은 지난 몇 달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는 미 전역의 단체와 공연 예술 커뮤니티에 기부했다. 그녀는 2022년 가을 시즌 동안 총 68만1천 달러를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데이글은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지칠 줄 모르고 끝이 없어 보이는 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조직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데이글은 2019년 ‘더 프라이스 펀드’(The

Price Fund)를 설립했으며 티켓판매, 상품 판매 및 스트리밍을 통한 기부를 통해 전 세계 37개 비영리 단체에 220만 달러 이상을 배포했다.

그레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데이글은 가장 작은 자들을 보살피는데 열정을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 2021년 CP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고등학교 때 괴롭히던 사람들을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저는 담대함을 원합니다. 제가 옹호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고 동료들이 나를 압박할 때에도 여전히 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 분은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그 분은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글은 청년 기독교인이 되는데 따르는 압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인용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기독교인들에게 압력에 직면해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라고 격려했다.

이미경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배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아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저녁 7:30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7:00
 목요일기도회 목요일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9:00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7:00
 목요일기도회 목요일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이정민 담임목사

새생명감사교회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
 T. (626)773-11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일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주일예배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현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차세대)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가)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영성강연예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가)도움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자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ken 고지)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생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slow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라티노)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강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가)도움(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강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금)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가)도움(마지막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일)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vcm.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 대법원,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당분간 유지



2021년 9월 미국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지대인 델리오의 다리 아래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아이티에서 건너온 난민들로 1만여 명에 달했다. ©N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미국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이 역대 최대를 갱신한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무단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명령인 '타이틀42'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7일 '타이틀 42'에 대한 중단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유예 신청을 승인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중단 유예에 찬성했지만, 4명은 반대했다.

이 행정명령은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무단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며, 변론 기일은 내년 2월로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현재 국경 위기는 코로나19 위기가 아니"라며 행정명령 유지에 반대했다.

그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참여한 반대 의견서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비상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단일 비상사태를 위해 고안된 행정명령을 영구화 해선 안 된다. 우리는 최종 정책 입안자가 아닌 법원"

이라고 주장했다.

타이틀 42에 대한 중단 유예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11월 남서부 국경에서 미국 불법 이민이 23만 3740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결정됐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내 불법 입국으로 적발된 건수는 매달 10만 건을 넘어섰다. 2020년 4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멕시코 잔류'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 불법 입국은 1만 7106건에 불과했다. 멕시코 잔류 제도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낸 뒤 망명 심사일에 출석하도록 입국을 규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자 국경 내 무단 입국은 올해 3월부터 20만 건을 넘어 5월까지 증가했다. 특히 남서쪽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수는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불법 이주민 폭증은 텍사스주의 엘파소 등 국경 도시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오스카 리서 엘파소 시장(민주당)은 국경 관할 구역으로 유입되는 불법 입국자 폭증을 우려해 이달 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김유진 기자

신임 목회자에 저항하는 교회의 심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27일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기고한 "교회가 새 목회자의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했다. 샘 레이너는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이며 플로리다주 소재 웨스트브레이크턴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크리스천포스트

- 1. 당신이 바뀌었다.**
신임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이 목사로서 부담한 첫 해에 사람들은 여전히 큰 변화를 경험한다.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교인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인물이다. 처음 몇 달 동안 시도한 모든 변화는 교인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노력할 때에 확대된다.
- 2. 기술적·문화적 변화**
변화를 원한다는 말은 종종 기술적 변화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가로 여긴다. 기술적 변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적 변화는 기술이 아닌 문화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기술 전문가는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지도자인 당신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믿는 문화적 변화에 마음이 끌릴 것이다. 하지만 리더십 초기에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시작하기 전, 쉬운 기술적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
- 3. 변화 제안자에 대한 신뢰 부족.**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첫 달에 격려 카드를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다. 존경과 신뢰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더라도 존중할 수는 있다. 큰 행동을 보이기 전, 존경을 표현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으라.
- 4.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다. 내가 이끄는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가? 현재 방식이 성공적으로 나타나면 문제의 흔적은 대중의 시야에서 가려진다. 지도자로서 당신은 조직 내부의 지식 이 가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일반

교인은 전혀 접할 수 없는 지식이다. 변화를 시도하기 전, 사람들에게 숨겨진 문제를 보여주어야 한다.

5. 실현 불가능한 변화라는 믿음.
모두가 변화가 좋다는 데는 동의해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 가능성보다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쉽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해결책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6. 지위, 자격 및 권력의 상실.
사람들은 권력을 재편할 때 변화의 노력에 저항할 것이다. 어떤 저항도 없이 기꺼이 자기 지위나 자격, 권력을 포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적 조직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조직 내에서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교회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기 전, 힘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친구가 되어라. 그들을 설득한다면 장기적인 문화적 변화를 만드는 데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7. 가치와 이상에 대한 위협.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와 이상이 도전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변화가 현재의 이상과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면 광범위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 가치와 이상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고립된 목회자는 교인들이 입을 열지 않는 가치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한다.

변화란 조직 내의 사람들이 변화의 장점이 그 비용보다 크다고 믿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쉽게 혹은 빨리 오지 않는다!

김유진 기자

스코틀랜드서 미성년자 성별 전환 법안 통과



2022년 12월 21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 간소화 법안에 반대하는 '자의적 성별 거부(No to Self-ID)' 시위가 벌어졌다. ©스코티시 선 유튜브 보도화면 캡처

스코틀랜드 정부가 의학적 소견 없이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22일 '성별인정개혁법안'(Gender Recognition Reform bill)을 찬성 86표, 반대 6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왕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성별 인식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또 성별 불쾌감에 대한 의학적 진단 요건을 없애고, 개인이 선호하는 성별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 법적 증명서는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이 아닌 취득된 성별"로 명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국무장관인 엘리스터 잭은 성명에서 정부가 다양한 우려로 인해 이 법안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잭은 정부가 "법안의 특정 대목,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 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함께 나눈다"면서 "향후 몇 주 동안 2010년 평등법 및 기타 영국 전역의 법률로 인해 파생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왕실 재가를 위한 법안을 중단하는 제35조 명령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시행

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이자 스코틀랜드 시민인 J.K. 롤링은 이 법안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지난 10월 롤링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여성 권리의 파괴자"라고 적힌 셔츠를 입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법안에 반대했다. 해당 문구는 법안 옹호자인 니콜라 스타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제1장관을 빗댄 표현이다.

이 법안은 2004년 제정된 성별인식법을 개정하기 위해 3월에 발의됐다. 정책 지지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4년 법 제정 이후, 성 정체성 건강을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 '성 건강과 관련된 조건'으로 재분류하는 등 국제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 근거를 들었다.

성별 정체성 법은 지난 2012년 아르헨티나가 최초로 제정한 이후,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몰타, 노르웨이 등에서 잇따라 합법화됐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개인 의사에 따라 바꾼 성별을 합법적인 성별로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의회도 같은 날(22일) 성별 전환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하원은 16세 이상부터 의학적 소견 없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188표, 반대 150표, 기권 7표로 가결시켰다. 김유진 기자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기독교인, 다시 예수 믿게 된 사연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한 기독교인 남성이 진리를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연이 공개됐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아이 파운드 더 트루스'(I Found the Truth)는 최근 마이크 웨스터필드(Mike Westerfield)라는 남성의 간증을 소개했다.

마이크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그에게 이슬람 서적을 전해 준 무슬림 수감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됐다.

마이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를 어떻게 변증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매일 방문했던 무슬림 수감자들은 그의 이러한 약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난 결국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슬람 교사인 이맘이나 학자가 되기 위해 한동안 이슬람 대학까지 다녔다. 12년 동안 무슬림으로, 그 중 7년은 매우 충실한 무슬림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슬람의 속임수와 거짓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성경대학에서 기독교 변증에 관한 오랜 책을 뒤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예수는 역사다'(Case for Christ) 등 변증가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의 문헌과 라비 재커 라이어스의 영상도 보았다. 그러다 '엠브레이스 더 트루스 인터내셔널'(Embrace the Truth International)과 함께 사역하던 압두 머레이(Abdu Murray)를 소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는 "그는 내가 만난 첫 번째 무슬림 개종자였고, 나의 생각과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는 나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날 비난하지 않았다. 한때 이슬람에 열광했다가 지금은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잘 들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예수님의 보혈로 뒤덮이는 꿈을 꾸었다. 왜 이러한 꿈



마이크 웨스터필드. ©'I Found the Truth' 영상 캡처

을 꾸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정말 놀라운 일였고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마이크는 머레이에게 전화를 걸어 꿈에 대해 말했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마이크가 꿈을 꾸던 날 밤, 그와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은 예수님께서 꿈을 통해 마이크에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했기 때문이다.

마이크는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을 꾸게 하셨고, 그분의 보혈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할렐루야! 그때 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고 했다.

1년 후인 2013년 1월, 마침내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거듭났다.

그는 "이것은 영광이었고, 예수님은 결코 날 포기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이자 주세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저는 특히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중 믿음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9:30
2부 예배 오전 11:00 OC예배 11:30
3부 예배 오전 1:30 OC예배 2:0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경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유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청)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부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15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반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근본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85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 방향 전환”

필자는 엘에이 인근 한 교회의 새해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지난 2년여 동안 교회는 영적인 침체기를 보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과 한국 등이 아무 저항 없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갔다. 예배가 없는 주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교회들은 예배의 돌과구를 찾기 위해 인간임을 썼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갖고 있던 주일성수나 모이는 기도회의 영적 권위는 약해지고 말았다. 지난간 세월을 돌아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성도 하고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익혀왔던 교회론의 신학에 개선이 필요함을 말했다. 이제껏 전통적 교회들은 교회 건물 중심의 모이는 교회론을 따랐다. 교회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착점이라 가르쳤고, 배웠다.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성도는 목회자가 짜놓은 예배 순서에 맞춰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가 여러 성도 사이에서 소위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말마다 예배석에 앉아 한 시간 보내고 교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예배의 반복적 행위에 익숙해 있었다. 훈련이 잘되고 자기 신앙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영성의 소유자가 교회마다 절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2년이 지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받은 충격은 컸다. 미주 전체에서 한인교회만 500개 이상이 사라졌다. 포클로즈를 한 것이다. 버텼던 교회들은 말 그대로 성도의 수적 감소의 상황을 받아내야만 했다.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방에 있으니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기쁨 부어주셨다. 팬데믹 가운데 이길 있는 힘은 예배의 영성이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예배 영성을 갖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2023년에 감사한 일 중 하나는 많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꿈을 갖고 열방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보이는 것이다. 선교 기도회를 열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한 종족 이상 품고 날마다 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 기도회를 갖는다. 현장 선교 경험이 많은 선교사들을 모시고 선교 부흥 사경회를 한다. 필자는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그 일을 위해 교회들을 돕는 데 힘을 쏟고 싶다. 1월에 터키를 다녀온다. 현재 터키 60개 지역에서 60가정의 현지인 교회 개척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을 실크웨이브 미션이 후원하고 있다. 그 현지 교회들의 동절기(매우 어려운 시기) 교회 개척 사역을 돌아보며 격려하고 후원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터키 산간 지역의 겨울은 특히 춥다. 눈 폭풍도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 터키의 남부지역 시리아와 접하고 있는 국경도시인 마르딘이나 디야르바르크 같은 지역도 들어갈 것이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야 할 것이다. 대망의 2023년에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오직 예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방을 밝게 되기를 갈망한다.

반면 열방의 선교지는 어떨을까? 특히 중동 아랍권의 이슬람 지역에서의 복음 증거는 더욱 활발했고, 전도율도 다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기독교 종교 탄압을 대놓고 하던 이슬람권 나라들도 팬데믹으로 인해 출입을 자제시켰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더욱 많아졌다. 복음 증거의 기회가 없어질 듯했는데 오히려 전도팀들을 주민들은 더욱 흔쾌히 가정 안으로 받아들였다. 선교사로 파송 받아 간 청년 학생들 나이는 비록 20대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스스로 기도 제목을 찾을 줄 알고, 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난파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느 외딴섬에 다다릅니다. 그 섬에는 프로스페로라는 노인과 그의 딸 미란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사실 프로스페로가 마술로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밀라노를 지배했던 대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술 연마에만 탐닉하며 정무는 동생 안토니오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책 속에 파묻혀 마술만 공부하다가 변절한 동생 안토니오에게 일격을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안토니오는 형을 대신해서 권력 행사를 하다가 자신이 권력을 가진 줄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려는 욕심에 형의 적이었던 나폴리 왕 알론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왕의 군사 지원을 받은 동생 안토니오는 형 프로스페로를 비참하게 쫓아냈습니다.

어린 딸 미란다와 함께 망망대해에 버려진 그는 충신 곤잘로의 도움으로 자신이 아끼던 마술에 관한 책들을 갖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고 외딴섬에 당도하였습니다. 원래 이 섬은 시코락스라는 마녀의 마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코락스는 프로스페로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고 그의 아들 칼리반이 섬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섬에 도착하여 섬을 정복해합니다. 먼저 시코락스가 마법에 걸어 가두어 두었던 정령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령들이 그의 하녀가 되었고 정령의 대장인 에어리엘이 프로스페로를 잘 섬기고 따랐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스페로는 그 섬을 지배하던 칼리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프로스페로는 섬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고, 아빠 외에는 남자를 만나 본 적이 없는 미란다도 섬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오와 나폴리 왕 알론조 일행이 탄 배가 그 섬을 근해를 지나가는 것을 본 프로스페로는 큰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고 쫓아 버린 그들에게 복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폭풍우로 배를 난파시켜 버리고 그들을 섬으로 유인했습니다. 에어리엘은 프로스페로에게 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파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어떤지, 폭풍우에 난파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난파선에는 프로스페로의 동생 안토니오, 나폴리 왕 알론조와 왕의 아들 피르디난드가 탔었는데, 배가 난파되자 모두 바다에 뛰어 들었습니다. 모두 살았지만 모두 자기만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에어리엘에게 페르디난드 왕자를 데리고 자신의 딸 미란다에게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실의에 빠져있던 페르디난드 왕자는 미란다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버지 외에는 남자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미란다도 페르디난드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프로스페로는 둘의 사랑을 시험하려고 페르디난드에게 무거운 통나무를 쌓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미란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그를 도와 주려하지만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춘 남녀의 사랑은 깊어 갔습니다. 그 상황에도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느라 통나무를 쌓아 올리는 일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에어리엘은 프로스페로에게 프로스페로의 동생 안토니오와 나폴리 왕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진맥진한 두 사람 앞에 에어리엘이 진수성찬을 차려 주었습니다. 배가 고파 거의 죽게 된 그들이 음식을 보고 먹으려고 덤비는데 하피라는 괴물이 나타나 그 음식을 모두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 하피가 두 사람이 과거에 프로스페로와 어린 딸을 망망대해에 버린 일을 상기시키고 그 죄 때문에 두 사람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리 왕과 안토니오는 자신들이 프로스페로에게 잘 못한 것을 기억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리엘은 이런 두 사람의 심경을 프로스페로에게 상세히 보고했습니

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자신이 비록 정령이긴 하지만 그들이 몹시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로스페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단지 정령인 내가 그들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들과 같은 사람인 내가 어찌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했습니다. 프로스페로 앞으로 끌려 나온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프로스페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그들이 프로스페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두 사람을 용서한다 했고 두 사람은 프로스페로에게 군주의 자리를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로스페로가 나폴리 왕에게 자신도 선물을 주겠다고 미란다와 함께 있는 왕자를 보여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아버지와 아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만난 미란다는 “멋진 사람들! 찬란한 신세계(Oh brave new world!)”라며 감탄합니다. 프로스페로는 모두를 용서하고 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젊은 두 남녀는 결혼을 약속하였고 에어리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의 유쾌한 희극 “폭풍우(Tempest)”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란다의 감탄(찬란한 신세계!)에 감동받은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썼고, 베어토펬은 이 폭풍우(Tempest)라는 이름으로 동명의 소나타를 작곡했습니다.

폭풍우는 용서와 화해를 선언합니다. 12년간 외딴 섬에 유배되었던 프로스페로와 공주 미란다에게 보복과 투쟁이 없습니다. 폭풍우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치고 받기에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짧고 덧없어서 삶은 아름답습니다. 비록 배신을 당하고 외딴 섬에 살아도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나면 감탄하며 “멋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the 2023 Midwest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School of Theolog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others.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부활 소망의 신앙(1)

사도행전 13장 29-4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29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1 갈릴리로 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기록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기록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니라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씩음을 당하였으되 37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38 그러므로 형제들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 그러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으니라 42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지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헌신할 의사를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약혼했던 마리아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요셉에게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배면 동네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와서 때려죽이는 것이 율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잘 키우고 그 뒤에 아들 넷, 딸 셋을 요셉 사이에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양으로 헌신을 하게 되던지 간에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로 인하여 절대로 피해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소망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나 지나 부활 소망의 신앙!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정자 예수님으로 더불어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를 성령 케이스에 끼워가지고 아버지가 아들로 더불어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란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69.7%가 거의 70%가 하늘나라도 없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믿음도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 나갈 것인가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했던 것처럼 "We must be resurrection"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부

활은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며,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이라 믿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는 내가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의 소망을 가꾸고 이끌어 주는 곳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에 있어서 내 아버지, 어머니 보다 소중하고 내 아들, 딸 보다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이 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이분을 통하여 영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늘 나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생활이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까지도 바뀌어 생명의 부활에 맞추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안 될 곳은 가지 않게 되고, 하면 안 될 일을 결코 하지 않을뿐 해야 할 일은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부담이 되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행 29-31)

여기 갈릴리에서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리워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다가 세 번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시간 맞출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지시받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신체가 건강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끌고다 언덕까지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형틀을 대신 날라 주는 것이라 기분 나쁘게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과 인연이 되어서 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볼 수 있었고, 천지가 개벽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그 사건을 보면서 감탄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도 감탄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아내와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도 다 하늘나라가는 부활 소망의 신앙 가문으로 대를 잇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지면, 어떤 일로 쓰임을 받았던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영적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한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혜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
돕습니다.

www.Kidokshop.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식 변화유연한 변태능력 보유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이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찰밥 오뎅떡볶이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거룩한 기대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상).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상).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

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바란다는 것은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8).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쫓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거룩한 기대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 살피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미리 솜을 예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기대는 좋은 만남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 복된 말씀과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변화와 성숙을 위한 좋은 배움의 기회와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아름답게 변화하고 성숙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만남 속에 담긴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배움을 낳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해 줍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만남 뒤에 수많은 새로운 만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만남임을 거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기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불드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늘 붙잡고 사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제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벼랑 끝에서 비상하게 하셨습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품은 거룩한 기대는 우리 자신이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근거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복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복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빕니다.

최윤정 칼럼

아버지와 산길



최윤정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보낸 유년시절은 시골생활 못지않게 추억이 많다. 한겨울 대낮은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어도 땅이 퐁퐁 열 만큼 추웠다. 겨울날 정오가 지나면 뒷산 무덤가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풀쑤이 사납게 우거진 여름보다는 황량한 겨울 야산이 아이들 놀기엔 훨씬 좋았다.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분봉 위를 날아다니며 신나게 놀다가도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모두들 제 집으로 흩어졌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면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그곳

은 다시 죽음의 고요가 엄습하는 무서운 공간으로 변했다.

그 날은 아버지를 따라 큰덕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때였으니 통행금지기가 있던 시절이었다. 친척들이 모여 심각한 얘기가 오갔는지, 딸내미 하나만 데리고 가셨던 아버지가 너무 늦게 큰덕을 나셨다. 차편이 마땅치 않아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그만 통금시간이 되고야 말았다. 집에 가려면 불광동에서 내려 연신내를 따라 15분은 걸여 들어가야 하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통금에 걸리게 생겼으니, 아버지 판단에는 차라리 버스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야산을 넘어 집에 가고자 하신 것 같다. 밤 12시, 9세 인생에 그 무서운 산을 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 내 생각에는 천 만원을 준대도 절대 하지 않을 일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전쟁기념관에서 봤던 육이오때 중공군 포로의 군용점퍼를 입어보는 일이었다고, 다른 하나는 한밤중에 우리집 뒷산을 넘는 일이었다. 전

자는 당시 극성을 부렸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의 영향이었고, 후자는 어른들의 교육용 각본에 주로 등장했던 망태 할아버지와 TV 인기 드라마였던 전설의 고향 탓이었던 것 같다. 전설의 고향에 의하면 야심한 밤 뒷산에는 주로 구미호가 나타났다. 그날 밤, 천만 원을 준다는 사람도 없는데 망태 할아버지와 구미호가 번갈아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산길과 마딱뜨려야했다.

보름달이 우리 부녀를 환하게 비춰준 그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야산을 넘던 기억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의미를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는 그 산길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망태 할아버지가 나타난대도 구미호가 꼬리 아홉 개를 펼쳐 길을 막는다 해도 정말 무서운 게 없었다. 그 때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후에 살아오면서 정말 그랬다. 죽을만큼 힘든 고비의 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가야하는 순간에도 내 손을 굳게 잡고 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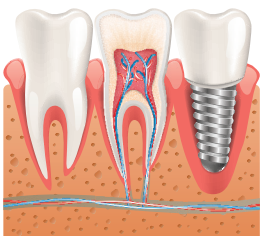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용서해주시고(마6:15),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게 하시고(마18:19),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눅11:13), 탕자를 맞아 주시고(눅15:20),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1:12), 영생을 주시고(요6:40),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요6:44),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갈4:6),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엡1:3),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엡1:17), 아들로 대우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히12:7),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약1:17)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말씀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진리이시다. 그 아버지께서 여전히 내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을 걸어가자 하신다. 진리 안에 살아가자 하신다. 복음과 함께 산을 넘어가자 하신다. 그 겨울 밤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던 부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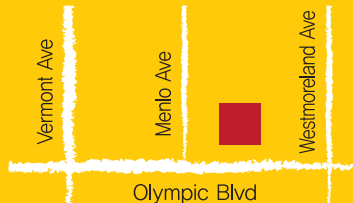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진유철 칼럼

희망의 돈을별 가득한 2023년을 바라며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돈을별’의 사전적 정의는 ‘아침에 해가 솟아오를 때의 햇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돈을별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

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29:11) 그러나 작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미래와 사람들의 희망보다는 당장 현실 문제에 매여서 남의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조차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승자에게 덕담은커녕 비난과 저주 퍼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틈만 나면 상대의 흠을 찾아 공격하는 태클 걸기와 내편 챙기기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참된 미래와 희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을 받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개인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미국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었던 9.11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신을 보여준 방송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현장에는 도둑들

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지 않았습니 다. 그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친절이며 미래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대신에 여러 헌신적인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을 영웅으로 바라보며 보도했습니다.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영웅적인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희망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만이 절망의 현실에도 무릎 꿇지 않고, 분명한 기대와 소원을 갖고 앞의峠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세익스피어는 “불행을 치료하는 약은 희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놀랍게도 두 가지 반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의자만이 놓여 있어서, 절망이 앉았다 있으면 희망이 함께 할 수 없고 희망이 차지하면 절망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희망이 있는 사람과 절망에 붙잡힌 사람과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절망 중 어느 의자에 앉아서 202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죄 사함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년성찬예배와 기도원신년축복성회와 신년 특새를 통해 참된 희망의 돈을별을 체험하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김한요 칼럼

거기에 있겠습니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1월 1일 주일이 2023년, 새해의 시작입니다. 1일이 새해 첫날이던 동시에 예배의 첫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메시지입니다. 1일이 주일이고, 새해 첫날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새해 첫날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새해

에는 무슨 단추부터 끼워야 할까요? 새해는 어떤 기도로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메시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원년을 2023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어른거리는 팬데믹의 끝자락에 있던 하지만, 모름지기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모두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에 포스트 코로나 원년을 선포하는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놓쳤던 은혜들을 사모하며 심기일전하고픈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주제도 [Always Be There]로 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 없는 예배의 자리, 거기에 있겠다는 선포이며, 더 나아가 다시는 은혜받는 일을 미루지 않고, [거기에 있겠습니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뚜껑을 열어보니, 교인들의 20-30%가 현장에 나오지 않

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가 편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은혜’ 받기보다는 ‘편리’가 먼저고, ‘비전’ 보다는 ‘현실’이 앞서며, ‘예배’보다는 ‘편함’이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도전은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더욱 뚜렷하게 그 성향이 돌출되었습니다. 교회가 예배의 현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가는 것은 당연히 기울여야 할 노력입니다. 그러나 편해야만 예배드리고, 불편하면 옮기고, 멀면 그만하고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광야를 허락하셔서 마땅히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로 부르시듯, 우리의 불편함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년을 우리의 유용성(availability)을 100% 회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흠어졌던 마음들이 제자리로, 산만했던 우선순위로 제자리로, 여기저기 달아났던 마음들도 제자리로 100% 돌아오는 원년이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있겠습니다(Always Be There!) 외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의 축복은 항상 거기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수색 작전 명단에 오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을 솔선수범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됩시다. 새해에는 거기에 있어 주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셀모임의 자리에, 눈물의 기도 자리에, 다시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Always be there!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축선교
박상원 목사

그러던 어느 날, M은 문득 지난날의 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자네는 사내 중에 사내였어. 의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칼에 찔려 죽어 가던 나를 살려 줬서가 아니라 자네의 심성을 잘 알기에, 나는 자네를 평생에 생사를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한다네.” 속 깊은 얘기를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그날은 작정한 듯 지난날까지 들먹이며 얘기했다. “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네. 지금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를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 평생을 함께할 친구로서 자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도록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네. 제발 도적질하고 싸움질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모습

이 아닐세.” 하지만 당시 나는 M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는 귀가 없었다. 듣기에 좋은 말로 내 마음을 달래려는 수작으로 보였고,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도 아첨하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M이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사사건건 M의 일을 방해하고 그의 깊은 마음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M에 대해서도 대단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탈북자 신세가 되고 나서야 국경을 넘는 뒤 신약성경을 읽고 나서야 친구

의 충고가 옳았다는 것과 그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어린 말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M이 사사건건 지옥을 들먹이며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으나, M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무지해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조국의 땅에서 쫓겨나게 했는지도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앞에서 나는 무너지고 말았다. 2001년 가을, 내가 조선보위부에 체포되던 그날, M 역시 전도하려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를 체포하러 대기하던 보위부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계속)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려나?**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해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023년 새해, 기독교 출판사들이 고른 '이 책' 읽어볼까

1. 규정

◆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지용근 외 9인 | 328쪽)

이 책은 한국 교회 트렌드 분석서로 어렵고 힘들어질 2023 한국 교회를 향한 예측과 전망을 전문 리서치 데이터에 기반하여 35개 조사보고서와 100여 개의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어, 주관적인 예측과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목회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유기성 | 296쪽)

이 책은 시편을 묵상하며 다윗처럼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유기성 목사의 예수 동행 시편 일기 시리즈 2번째 책으로, 유기성 목사가 예수님과 동행한 10년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그려내고 있다.

◆ 뷰티풀 광야(한홍 | 304쪽)

한홍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 아름답고 광야는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역설하며 쓴 책으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이 가득한 그곳 광야에서 강해지고 깊어지고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고백이 담겨 있다.

2. 두란노

◆ 먹다 듣다 걷다(이어령 | 176쪽)

'기독교가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책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경적 역할을 하는 방식과 방향성을 짚어 나간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익숙한 교회를 향해,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는 대단히 역동적인 사건"임을 언급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동성"으로서의 기독교 정체성을 제시한다.

나눔과 구제, 대사회적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반드시 자문해야 할 대명제를 "이삭 줍는 사람들", "만중" 같은 다양한 명화와 인문학적 통찰을 곁들여 하나씩 풀어놓는다.

고인이 된 저자가 마지막까지 씩씩하다가 떠난 질문과 답을 담은 이 책은 한국교회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기독교의 세계관과 사명을 쉽게 설명해줌으로 '2022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조정민의 답답답 (조정민 | 244쪽)

이 책은 데메시리랩 10만 구독자들의 솔직한 신앙 고민 중 신앙인이려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80문에 대한 조정민 목사의 명쾌한 대답을 담았다.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믿음/기도, 신앙생활, 연약함, 고난, 분별, 가정/연애, 일상생활'라는 7개 주제로 나누어, 말씀을 근거로 한 공감의 언어로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한다.

평소 궁금했지만 이야기할 수 없었거나 묻지 못했던 질문들과 고민들, 가령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을



기독교 출판사가 고른 '우리 출판사 올해의 책' 중 일부.

믿어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사고가 난 것일까요?'와 같은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초신자에게는 '신앙생활의 궁극증에 대한 답', 기신자에게는 '신앙과 현실 사이의 답답함 해소'를, 리더들에게는 '지체들의 신앙고민을 해결해 줄 길을 제시'하는 많은 유익을 지닌 책으로, 출간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직분과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답이 되어주고 있다.

◆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팀 켈러 | 장성우 역 | 140쪽)

미국 교회의 3분의 2 이상은 이미 정체기를 맞았거나 쇠퇴하는 중인 위기의 시대. 이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화두는 간명하다. "기독교 신앙에 점점 더 적대감을 보이는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토록 긴급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교회사를 되짚어 보는 데서부터, 현 시대를 복음으로 분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로써 독자는 이 책의 적실성 있는 조언을 통해, 탈기독교시대 복음 전략을 도모하게 된다.

저자는 현 시대의 기독교가 직면한 도전이 바로 1세기 기독교도 당면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당시 적용한 복음 전략을 오늘날 상황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로써 복음의 진리를 등지고 세속 사회로 질주하는 세대가 다시금 기독교가 가르치는 탁월한 세계를 주목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는다. 손바닥만 한 판형의 작고 얇은 책이기에 누구나 쉽게 완독할 수 있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주제와 복음에 대한 전략은 그 어떤 책보다도 깊이 있고 탁월하다.

3. 부흥과개혁사

◆ 이상한 신세계(칼 트루먼 | 윤석인 역 | 235쪽)

현대의 성 관련 이슈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현대의 자아상과 성관념에 대해, 그 근본적인 틀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

하여 기독교의 관점을 세워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개혁과 조직신학(3-4권)(조엘 비키 · 폴스몰리 | 박문재 역 | 683 · 903쪽)

본래 한 권으로 출간한 <개혁과 조직신학> 제2권 인간론과 기독교론을 번역한 책이다. 개혁주의 정통 조직신학의 계보를 잇는 책으로, 풍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여 설명했다. 접근법 자체가 차별화되고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 때문에 독자가 해당 주제에 온전

히 집중할 수 있도록 쓰여, 향후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모범적 전거로 자리잡을 책이다.

◆ NTT 요한계시록 신학(토머스 슈라이너 | 김구탁 역 | 247쪽)

수수께끼 같은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책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나, 이 책은 작은 분량임에도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성경 전체와 기독교 신앙과의 전반적인 상관성 안에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렇다 해서 내용에 깊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평생 신약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저자의 완성된 신학의 깊이를 얻을 수 있다.

4. 세움북스

◆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황희상 · 정설 | 332쪽)

유럽 종교개혁 역사 여행의 시작. 기존 성지순례와 개념이 다른, 개신교의 뿌리를 찾는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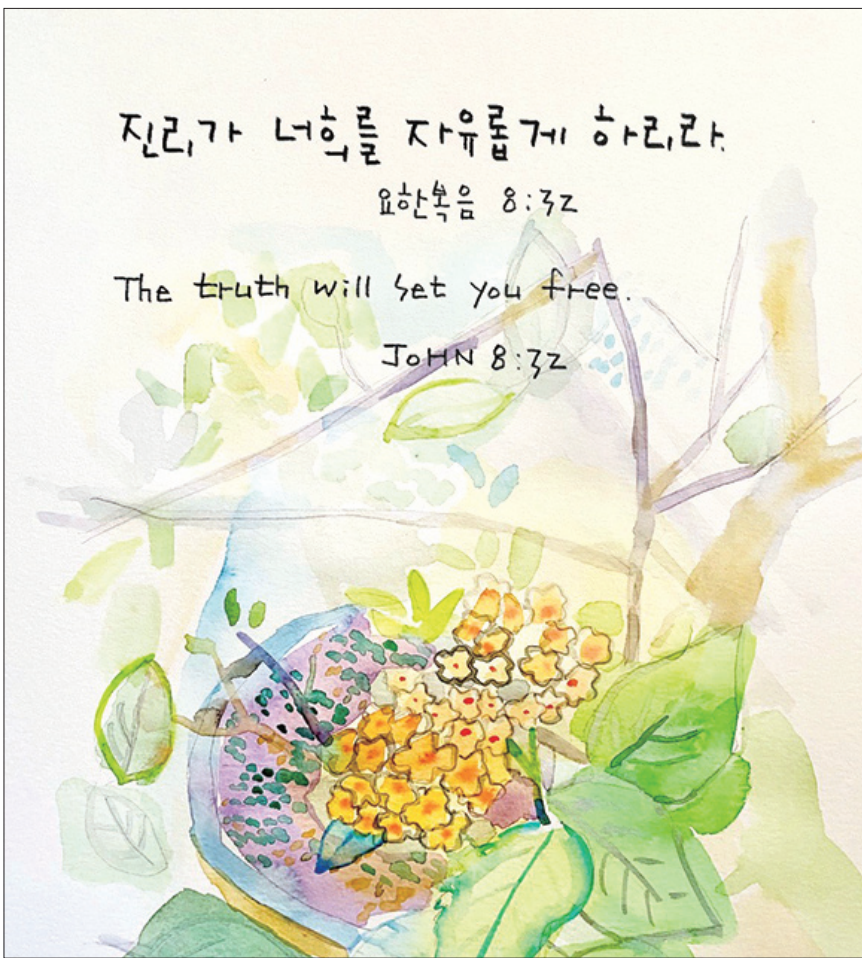
◆ 만화방 교회 이야기(신재철 | 320쪽)

동네 사람, 동네 목사의 파란만장 교회 개척 이야기.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목회의 좋은 모델! 모두가 알아야 할 이종직 목사의 교회 개척 이야기.

◆ 작은 자의 하나님(서진교 | 250쪽)

장애아를 키우며 장애인 자립을 위해 일하는 지훈이 아빠 이야기. 성공담이 아닌,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시각의 간증 시리즈. 관념화되어 말라버린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책. 이대웅 기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보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고희 <자장가>, 렘브란트 <성가족의 저녁풍경>

이웃 모습에서 '영원의 흔적' 찾고자 했던 반 고희

반 고희, 명사 아닌 주변 평범한 인물들 모델 삼아 <자장가> 속 오귀스틴이 잡고 있는 '끈' 이 그 비밀 자신만 방식으로, 렘브란트 <성가족...> 발전시켜 세상 가운데 인간 품고 신실함 회복하는 크리스천

한번은 빈센트가 동료 화가인 안톤 반 라파르트(Anthon van Rappard)에게 삶의 신조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은 명료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라네." 빈센트는 인물을 그릴 때 사회적 명사나 지도자, 부유한 사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보다는 정원사, 우편배달부, 의사, 모자, 시인, 아기, 어린이, 청소년, 정원사, 목동 등을 즐겨 그렸다. 빈센트는 모델을 관찰의 대상으로 놓기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다.

조세 룰랭(Joseph Roulin)도 그중 한명이었다. 룰랭은 아들 기차역에서 일하던 우편배달 책임자로 빈센트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빈센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벗이 되어 주거나 심부름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 친구를 위해 빈센트는 붓을 들었다.

우편배달부 조세 룰랭의 초상은 소탈한 성품과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두드러진다. 푸른색의 우편배달부 복장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룰랭은 당당한 포즈로 전면을 주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시절 보이던 낮은 채도에 침침한 색조를 떨쳐내고, 밝고 풍부한 색조와 뚜렷한 윤곽선으로 친구에 대한 신뢰를 담아냈다.

이 작품과 함께 제작한 작품이 친구의 아내 오귀스틴 룰랭(Augustine Roulin)을 모델로 한 <자장가: 요람을 흔드는 사람>(La Berceuse, 1889)이다. 빈센트는 꽃무늬 벽지를 배경으로 흔들의자에 앉은 룰랭 부인을 인정한 어머니로 묘사하였다.

빈센트는 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 새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다. "나는 후광으로 상징되던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깔에서 뿜어져 나오는 참된 광채와 떨림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원의 흔적을 간직한 사람들을 그리고 싶구나."(1885. 9. 2)

이웃의 모습에서 '영원의 흔적'을 찾고자 했던 빈센트에게 오귀스틴은 안성맞춤이었다. 룰랭의 초상이 그가 느낀 인상을 표현했다면, 오귀스틴의 초상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보태졌다.

이 그림의 비밀은 그녀가 잡고 있는 끈에 달려 있다. 그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요람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녀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빈센트는 아이의 모습에서 영원한 그 무엇

을 볼 수 있다고 여겼다. "장엄하고 무한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아침에 잠에서 깬 어린 아이의 눈망울과 요람 위에 비친 햇살을 보고 웅얼거리거나 소리 내어 웃는 아이에게서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무한하고, 더 영원한 무언가를 볼 수 있다."(1882.7.2)

이처럼 아이에게 갖는 감정은 각별한 것이었으며, 빈센트는 엄마와 아이를 통해 관계성의 성스러움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 도상은 렘브란트의 <성가족의 저녁풍경>(1644)과 닮은꼴을 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요람에서 잠든 아기 예수와 책을 읽어주는 마리아를 모티브로 삼았다. 오른쪽에서 나온 불빛은 등장인물들의 윤곽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 요람의 아기 예수는 끈이 잡들어 있고 그 뒤로 반쯤 눈이 감긴 노인이 두 손에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

노인이 잡고 있는 것은 요람과 연결된 줄이다.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은 화면 좌측의 계단 밑에 가려져 있는데, 집을 수리중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평화스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야경이다.

빈센트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작품을 암스테르담에 체류할 때 보았던 것 같다. 신학교 진학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지만, 국립미술관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빈센트는 크리스마스 앞두고 오귀스틴의 <자장가>를 그리고자 했을 때, 불현듯 그 그림이 떠올랐다. 렘브란트 작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했기에, 망설임 없이 이 장면을 차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평소 애가졌던 렘브란트에 대한 존경심이 이 그림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셈이다.

이 그림에 대해 빈센트는 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어부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오귀스틴이 잡고 있는 끈이 바로 '위로의 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다의 선원이 해변의 여성을 생각할 때 꿈꾸는 것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1889. 3. 29).

선원이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그림을 보며 아내를 생각하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병마에 시달렸던 빈센트에게도 '위로의 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감상자 역시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유년 시절 어머니 품속에서 들었던 사랑의 자장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희, 자장가(요람을 흔드는 사람), 캔버스에 유채, 92.7x73.8cm, 1889, 뉴욕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소장

빈센트의 <자장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 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가 런던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웃의 모습을 화폭에 담을 때까지 변치 않았던 상수(常數)가 있다. 그것은 '다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었다.

비록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호의를 잘 알아채지 못했으나, 고희의 관심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신비한 매력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장가>에서 그가 들려주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가 접한 '평범한 사람'을 지도층 인사 못지않게 높이 놓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 '성공 신화'로 몸살을 앓는 우리 사회에도 널리 알려지면 좋을 것이다. 자신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든든한 관계성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장을 최고선으로 삼는 욕망의 회랑(回廊)에서 타인은 거주장스러운 장애물로 비칠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속 깊은 마음과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벌어진 심연을 건너는 다리가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럼에도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 자신, 이웃의 '신실함'이 왜곡되고 배제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나가는 것, 곧 '타자를 품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자리한 것은 동료 인간을 품음으로서 신실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빈센트는 이런 사실을 주저함 없이 드러낸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창조됐으며, 사랑은 '관계'라는 매개물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준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 과 함께 합니다.



계묘년 토끼처럼 높이 경충! 날아오르는 한 해 되세요.

CHOUETTE
하나사면 하나공짜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400 \$199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콜라겐 비타민 패치 이마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Forehead	콜라겐 비타민 패치 눈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Eye	콜라겐 비타민 패치 볼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Cheek
--	--	--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버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SNOOZY SOCKS

패션 자수양말 스누지 입점

스누지 5 패키지 자유선택
 원하시는 디자인의 제품을 5개 골라보세요.
 귀여운 패키지박스에 담아 드립니다.

패션양말 스누지는 당신들을 위한 선물이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곧 시작입니다!

Sulwhasoo

에센셜 컴포트 데일리 루틴 세트
 ESSENTIAL COMFORT DAILY ROUTINE SET (각종 2종)

BEST SELLER

雪花秀 10% OFF
130 \$116.50

5개입 \$30

Rucca 화산재 석고 마스크팩
 Volcanic Ash Plaster Mask

피부정화 부카 화산재

석고 마스크를 간편하게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신축성이 좋은 어깨 밴드로 거드방의 불편함 해소

지지대 없이도 탄성 있게 자세를 잡아주는 등판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등이 굽으면 거북목, 워킹장애, 허리디스크 등 모든 질병의 원인”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메세지 **Message chocolate**

벨콜라데(Belcolade)는 벨기에왕실이 사랑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로 최고급 코코아 버터와 천연 바닐라를 사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아티스트 초콜릿은 세계3대 초콜릿으로 꼽히는 벨기에의 프리미엄 초콜릿 벨콜라데(Belcolade)의 순수 100%코코아 버터만을 사용한 최상급 초콜릿입니다.

도소매 전화상담

ALLKO 올코 SHOP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CHARMZONE NC1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Ch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

전화 상담
 213-235-6663